

## 포스터광고 여성모델들의 신체에 대한 상향비교와 비만에 대한 두려움이 날씬한 신체 욕구와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조미애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

김찬원 ·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강사

박진우 ·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

본 연구는 젊은 여성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터광고에 등장하는 여성모델에 대한 상향비교와 비만에 대한 두려움이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 및 우울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여대생들에게 있어 포스터광고에 등장하는 젊은 여성모델들에 대한 상향비교는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비만두려움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만에 대한 두려움은 여대생들의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쳐 비만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도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는 우울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인 여대생들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가 크면 클수록 우울 성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 서론

오늘날 미디어는 수많은 정보 원천제공자로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보편적이고 강력한 문화적 도구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는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사고나 태도, 행동 등에 대한 기준 제시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편적 가치들을 생산하여 왔다. 이 중에서 여성들의 이상적인 신체나 외모에 대한 미디어의 이상화(ideal)는 많은 학자들로부터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자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여러 학자들(Thompson, 1990; Hamberger & Hall, 1988; Cash & Pruzinsky, 1990)은 현대 사회처럼 신체를 포함한 외모가 한 개인을 이해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으며,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상관없이 외모나 신체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미디어나 자신의 주변인(가족

키워드: 상향비교, 비만두려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 우울성향

이나 친구 등)에 의한 압력이나 스스로의 욕망으로 외모나 신체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자신의 자아(self)에 대한 안정감이나 적절감의 손상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자존감의 저하나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섭식장애와 같은 부적응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오늘날의 TV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보면, 이상적인 외모와 신체를 사랑하는 배우들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게다가 주요 인기프로그램과 광고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젊고 매력적이다. 사실 사람들은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겉으로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미디어가 제시하는 이상형을 자신의 이상형으로 삼는 것에 익숙해 있다(오미영, 정인숙, 2005). 즉,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체(몸)는 자아(self)를 표출할 수 있는 또 다른 표상이다. 서구 대중문화의 급속한 전파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신체에 대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신체는 더 이상 노동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문화적 도구가 되었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아이콘(icon)이 되었다. 이른바 대중스타로 불리우는 연예인들이나 슈퍼모델 등은 자신의 외모나 신체를 과시하고, 미디어는 이들의 신체에 대한 이상화를 통해 신체에 대한 미적 기준을 정형화시켜왔다. 우리사회에서 서구적인 체형으로 대별되는 날씬함(thinness)은 가장 전형적인 신체기준이며, 얼짱이나 몸짱 그리고 S라인 등과 같은 용어는 날씬함으로 이해되는 또 다른 상징이자 젊은 여성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이같이 날씬함이라는 신체적 기준을 젊은 여성들의 신체적 이상화(ideal)로 변화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도구로서 대중매체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방송이나 광고에서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실제로 등장하는 모델 대부분이 매우 날씬한 몸매를 지닌 여성들로 채워져 있다. 이에 따라 젊은 여성들이 방송이나 광고에 등장하는 젊고 매력적인 여성모델의 신체를 자신의 신체와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칫 그릇된 신체적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젊고 날씬한 여성모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출될수록 젊은 여성들은 날씬한 체형이 여성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보편적 신체적 체형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구의 대중문화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많은 젊은 여성들은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고 날씬한 체형은 신체외모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에게 이상화된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날씬한 신체에 대한 이상화된 압력은 날씬해지고자 하는 욕망

을 자극하고, 날씬해지고자 하는 욕망은 때론 성형이나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경우에는 섭식장애(Stice & Shaw, 1994)나 스트레스나 불안감(Harrison & Cantor, 1997; McMullen, 1984; Stice & Shaw, 1994), 우울(Heinberg & Thompson, 1995; Harrison, 1997)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사회에서 외모중시 경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나 성형부작용으로 인해 대인 기피현상이나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는 사례들이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미디어의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젊은 여성들의 왜곡된 신체상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터광고에 등장하는 젊은 여성모델에 대한 상향비교와 비만두려움이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II. 문헌검토

### 1. 광고의 신체이상화와 상향비교효과

미디어와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노출의 관계를 다룬 다수의 연구들을 보면(Posavac, Posavac, & Posavac, 1998; Harrison & Cantor, 1997; 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미디어의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노출이 지속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이 높아졌음을 보고하여, 젊은 여성들의 미디어 노출과 신체불만족 간에 높은 관련성이 존재함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젊은 여성들이 미디어에 등장하는 여성모델들의 신체와 자신의 신체를 비교, 평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Festinger(1954)의 주장에서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모나 매력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상(image)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체상(body image)은 비교와 평가대상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Cash(1990)는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갖는 주요한 특징을 몇 가지 측면에서 밝히고 있다. 첫째, 자아에 대한 느낌을 가장 중요시하며, 둘째, 고도의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개인이 경험하는 신체지각은 객관적으로 보여 지는 현실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셋째, 가족이나 동료집단, 사회 등에서

자신과 타인과의 경험이나 관계, 비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결정되며, 넷째, 신체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결국, 신체상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의해 좌우되며, 개인의 주관적 경험은 우리를 둘러싼 제반 사회의 다양한 경험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문화적 도구로서 TV의 이상화된 신체상과 젊은 여성들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의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TV의 이상화된 신체에 노출되었을 때, 젊은 여성들은 날씬함에 대한 내재화가 진행된다. 즉, 날씬함에 대한 내재화는 ‘날씬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수락하거나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것(Cusumano & Thompson, 1987; Heinberg & Thompson, 1995; Bessenoff, 2006)을 그 특성으로 한다. 그러므로 TV의 이상화된 신체에 대한 미디어 노출이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이루어질 때,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을 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이 날씬함에 대한 내재화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TV에 등장하는 이상화된 신체로 설정된 여성모델들의 신체와 자신의 신체를 비교함으로써 나타나는데 이를 사회적 비교라고 정의한다(Stormer & Thompson, 1996; Bessenoff, 2006).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강력한 사회적 원형이미지로 표현되는 사회적 동일성 습득을 통해 사회적 보상을 얻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진다(Gerrard, M., Gibbons, F., Reis-Bergan, M., Trudeau, L., Vande Lune, L., & Buunk, B., 2002; Gibbons & Gerrard, 1995). 이런 과정은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사회적 비교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어떤 것을 성취하도록 조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비교는 우리가 믿는 어떤 것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성공 수준을 결정한다. 사회적 비교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Festinger(1954)는 이를 하향비교(downward comparison)와 상향비교(upward comparison)로 설명한다(한덕웅, 장은영, 2003). 하향비교는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자기 자신과 누군가와 비교하여 누군가가 자기 자신보다 덜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것(Wills, 1981)이며, 상향비교는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누군가가 자기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더 낫다고 인식하는 것(Gibbons & Gerard, 1995; Wheeler & Miyake, 1992)을 뜻한다. Stormer & Thompson (1996)은 타인의 신체와 자기 자신의 신체를 보다 많이 비교하는 여성들은 높은 수준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Tiggemann과 McGill(2004)은

날씬한 여성모델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경우에 성인 여성이나 젊은 여성들 모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Field, Carmago, Taylor, Berkey와 Colditz(1999)는 날씬한 여성모델과의 상향비교를 할수록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섭식장애 징후를 보이기도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상적인 신체상으로 묘사되는 여성모델들과 자신의 신체를 상향비교를 한 젊은 여성들은 무기력감이나 스트레스,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낮은 평가로 인해 좌절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2. 상향비교와 비만 두려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망, 우울의 관계

신체상이 개인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자 그로 형성된 태도이므로, 개인의 성장 발달과 인간과의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 및 경험을 통해 일생에 걸쳐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며(Schilder, 1975; Jasmin & Trygstad, 1979, 성영신, 1997), 개인의 정서에 의해 형성(Norris, 1978)되므로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개인의 신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체형과 외모에 대한 편견, 강박관념 등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개인에게 소중하다고 인식되는 주위 사람이나 혹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비교나 지지 등에 의해 왜곡되기 쉽다. Jacobi와 Cash(1994)는 남녀 성인들,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사이즈를 왜곡하여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자신이 지각하는 신체 사이즈와 자신이 이상적인 신체로 지각하는 사이즈 간에 불일치를 보였으며, Cash, Bullen과 Burns(1977)의 연구에서는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여성이 더욱 더 여성적인 것으로 지각되기도 하였다. Stice(1994)는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은 모든 여성들에게 적용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재화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있어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구가 커질수록, 성역할 기준에 순응적일수록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체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으로 편향된다는 것이다. 날씬한 여성들을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부각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는 날씬한 신체에 대한 이상적인 신체상을 갖게 하여 이상적인 신체상과 실제 자신의 신체 간에 불일치를 일으키고, 이런 불일치는 신체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미적 기준이 가져오는 신체에 대한 그릇된 기준과 표준은 자신의 신체상을 실제보다 크게 왜곡시키며, 신체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욕망을 생산한다.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신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여성으로서 신체적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고자 하는 당연한 노력의 산물이며, 제도화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여성으로서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의 산물로 인정된다. 따라서 날씬하고 매력적인 신체를 가지지 못한 여성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같은 측면에서 Cash와 Pruzinsky(1990)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외모나 신체에 대해 보다 비판적이며, 몸무게나 체중에 심할 정도로 집중하는 성향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면서 날씬함은 아름다운, 매력적인, 지적인, 건강한, 성숙한 등으로 상징화됨으로서 여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조건이 되었다고 주장하여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상에 대한 기준과 표준이 다른 물론 남성보다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상화가 보다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느 특정 개인이 자신의 신체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비록 주관적 평가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 심리적 안녕감 등에 궁극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늘날처럼 외모가 한 개인을 이해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모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은 자신에 대한 안정감이나 적절감을 손상시켜 긴장이나 우울, 낮은 자존감, 대처능력 저하, 섭식장애와 같은 심리적·정신적 문제와 대인관계 손상 등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hompson, 1990; Fallo & Rozin, 1985; Hamberger & Hall, 1988; Cash & Pruzinsky, 1990; 안소연, 1994; 오숙현, 1994). 여성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수용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Reed, 1998; 박은아·성영신, 2001), 자신의 현재 체형에 상관없이 날씬한 체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날씬한 몸이 여성스럽고 아름답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다(Cooper, Taylor, Cooper & Fairburn, 1987).

젊은 여성들의 신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한 자신의 실제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종종 스트레스로 이어져 우울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울은 '절망이나 비판, 무력감, 슬픔, 불행 등과 같은 기분의 심리적 변화로서 정상적인 기분 변화에서부터 병적인 기분변화를 모두 포함하며, 수면장애나 피로, 식용상실이나 주의력 감소, 무기력감, 외부세계와의 단절, 자존감 저하 및 자기비하, 흥미의 상실 등과 같은 감정 상태에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우울상태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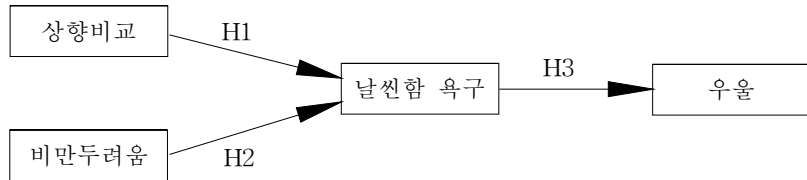
르게 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태도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이상 섭식행동을 보이거나 섭식장애를 유발(Stice, 2001; Stein, 1996)하기도 한다. Ross(1994)는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를 비웃거나 싫어하며, 매력적이지 못한 여성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우울 성향이 나타나며, 지속될수록 우울 정도는 높아지게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Ogden과 Evans(1996), 강정원·박찬욱·박형원·정혜숙·박영룡(1994)의 연구에서도 비록 스스로를 과체중 혹은 비만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신체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우울과 관련이 있었다. 박수정(2002)은 젊은 여학생들의 경우 날씬한 모습의 이상화된 신체상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여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뚱뚱한 것으로 왜곡하고 스스로를 매력 없는 여성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높으며,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면서도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더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우울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Nole, Cash 및 Winstead(198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상 왜곡과 우울 성향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자신의 신체상이 부정적일수록 우울 성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승교(1998)의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신의 신체상이 부정적일수록 우울성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상향비교나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는 한편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우울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포스터광고 여성모델들의 신체에 대한 일반 여대생들의 상향비교 및 비만두려움과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 및 우울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H1. 상향비교는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비만두려움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는 우울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조사대상

우리사회는 이미 미디어에 의한 지배적인 외모중시 경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날씬한 신체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한미정, 200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젊은 여성들이 이미 지배적인 외모중시 경향에 노출되어 있다고 상정하고, 평상시 포스터광고 모델에 대한 상향비교 여부와 비만두려움을 살펴보고, 이런 상향비교와 비만두려움이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와 우울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젊은 여성들을 대표하는 여대생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2개 대학교(C대, N대)에 재학 중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08년 12월 3일부터 5일에 걸쳐 250부를 배포하고, 223부를 수거하였다. 이후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21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3. 측정도구

### 1) 상향비교(upward comparison) 척도

본 연구에서 상향비교 척도는 포스터광고에 등장한 여성모델의 신체와 자신의 신체를 비교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측정하였다. 상향비교 척도는 Stormer와 Thompson(1996)이 개발한 외모 및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SATAQ)에 바탕을 둔 한미정(2002), 이시연(2005), 고유미(2007)의 측정 도구를 참조하여 2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향비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089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비만두려움(fear on weight) 척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는 비만두려움 척도는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한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상향비교 척도와 마찬가지로 비만두려움은 8문항의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비만두려움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3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신뢰할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drive for thinness) 척도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 척도는 Stormer와 Thompson(1996)의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를 바탕으로 Botta(1999)의 논문을 참조한 이시연(2005)의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6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80으로 높게 나타나 설문구성이 비교적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우울(depression)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Beck 우울척도는 모두 21개 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최소 0점에서 최대 63점까지 점수화되도록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34로 매우 높게 나타나 설문구성이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11.0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credibility analysis)과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7.0을 이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측정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상향비교는 비만두려움( $r=.240$ ,  $p<.01$ )과 날씬한 신체욕구( $r=.244$ ,  $p<.01$ ) 등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우울( $r=-.006$ ,  $p>.05$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포스터광고에 등장하는 여성모델에 대해 자신의 신체를 상향비교하면 할수록 비만에 대한 두려움과 날씬한 신체를 갖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만두려움은 날씬한 신체욕구( $r=.853$ ,  $p<.01$ ) 및 우울( $r=.167$ ,  $p<.05$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와 우울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날씬한 신체욕구는 우울( $r=.223$ ,  $p<.01$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날씬한 신체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우울성향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상관관계 분석

	상향비교	비만두려움	날씬한 신체욕구	우울
상향비교	-			
비만두려움	.240**	-		
날씬한 신체욕구	.244**	.853**	-	
우울	-.006	.167*	.223**	-

\*  $p<.05$  \*\*  $p<.01$

## 2. 가설검증

앞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비만두려움과 날씬한 신체욕구 간에  $r=.853$ 으로 비만두려움과 날씬한 신체욕구 간에 상관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치를 탐지하는 Casewise Diagnostics,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를 활용하였다. Casewise Diagnostics는 관찰된 값 및 예측된 값과 잔차의 크기를 비교하여 극단치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잔차가 크면 극단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표준편차  $\pm 3.0$  범위를 초과하면 극단치임), 이를 보완함으로써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는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는 그 값이 크면 클수록 극단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양병화, 2007). 이를 토대로 극단치를 탐색한 결과, 다중공선성을 유발시킨 사례(설문지) 8개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가설검증을 시도하였다. 다음의 <표 2>는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의 적

합도를 제시한 것이다. 적합도 지수인 RMR(Root Means Residual), GFI(Goodness-of-Fit Index), AGFI(Adjusted Good-of-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RFI(Relative Fit Index) 등이 모두 적합도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된 모델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표 2〉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적합도 기준	RMR	GFI	AGFI	NFI	RFI
적합도	.078	.998	.990	.998	.993
적합도 허용기준	.10 이하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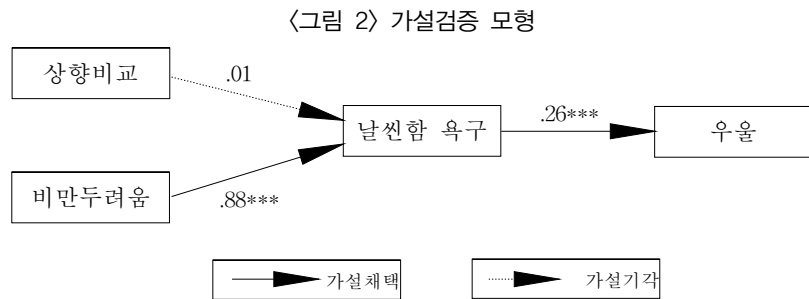
모델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로계수의 방향성과 유의성을 확인하는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에 보는 바와 같이, 포스터광고 여성모델 신체에 대한 상향비교는 조사대상자인 여대생들의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estimate=.007, C.R=.827,  $p>.05$ ). 그러므로 상향비교는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비만두려움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estimate=.882, C.R=26.222,  $p<.001$ ). 따라서 비만두려움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는 우울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estimate=.256, C.R=3.853,  $p<.001$ )으로 나타나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는 우울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 또한 채택되었다.

〈표 3〉 가설검증

가설	Estimate (표준화계수)	S.E(표준오차)	C.R(t)	가설채택 여부
H1. 상향비교 → 날씬함 욕구	.007	.043	.827	기각
H2. 비만두려움 → 날씬함 욕구	.882	.039	26.222***	채택
H3. 날씬함 욕구 → 우울	.256	.547	3.853***	채택

\*\*\*  $p<.001$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조사대상자인 여대생들의 경우, 포스터광고에 등장하는 젊은 여성모델들에 대한 상황비교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비만에 대한 두려움은 여대생들의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쳐 비만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도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인 여대생들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가 크면 클수록 우울 성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설검증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젊은 여성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터 광고에 등장하는 여성모델에 대한 상황비교와 비만에 대한 두려움이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 및 우울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들에게 있어 포스터광고에 등장하는 젊은 여성모델들에 대한 상황비교는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젊고 매력적인 여성모델들에 대해 상황비교를 할수록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예컨대, 다이어트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미정(2000)은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외모중시 경향을 감안할 때 날씬하거나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대중매체의 메시지는 이미 천정효과(ceiling effect)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중매체의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이미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thinness promoting)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여성 수용자들에게 있어 그러한 메시

지를 한 번 더 보게 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을 고려해 볼 때, 상향비교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미디어의 천정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비만두려움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만에 대한 두려움은 여대생들의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쳐 비만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도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젊은 여성들은 날씬한 신체를 과시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그 과정에서 타인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자 한다. 또한 자신이 능력이 있고 유능한 여성이 되기 위해서 날씬한 신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속적으로 가지게 됨으로써 결국 다이어트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한다(강상현, 1999; 이정운·최정훈, 1994). 따라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인 비만에 대한 두려움은 날씬한 신체를 유지하지 못하면 능력있고 유능한 여성이 될 수 없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하여 지속적으로 날씬한 신체를 갖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거나 날씬한 신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욕구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는 우울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인 여대생들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가 크면 클수록 우울성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정숙(2001)과 박소연(2004)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은 그 기준에 비교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가져 부정적인 신체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젊은 여성들은 날씬한 신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와 날씬한 신체를 유지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여성이 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은 좌절감이나 스트레스, 우울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다수 연구들(조지숙, 1992; Musa & Roach, 1973; 정영남, 2000; Kostanski & Grullone, 1998; Nole, Cash, & Winstead, 1985)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왜곡이나 불만 등은 좌절감이나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문제 및 대인관계 등에 손상을 주는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고 하여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가 지속될수록 우울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결국, 젊은 여성들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가 심리적 부담감으로 나타나 종래에는 우울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터광고에 등장하는 여성모델들에 대한 상향비교 및 그에 따른 비만두려움이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일부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본 연구는 여대생들이 그 동안 미디어의 이상화된 신체에 이미 노출되어 있음을 상정하였다. 이후 설문과정에서 포스터광고의 여성모델들에 국한하여 느꼈던 신체상을 떠올리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과연 이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포스터광고의 여성모델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미디어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인의 신체에 대한 자신의 종합적 경험에 의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단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결국, 후속연구는 미디어와 신체에 대한 전반적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제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상현 (1999). 다이어트 심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징원, 박찬욱, 박형원, 정혜숙, 박영룡 (1994). 10대 여학생들의 우울성향과 체중과의 관계. 가정의학회지, 15(9-10), 639-647.
- 고유미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비교가 보상구매와 상징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체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연 (2004). 부정적인 신체상을 지닌 여대생에 대한 계슈탈트 집단치료의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정 (2002). 인지행동치료가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진 여대생의 신체상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아, 성영신 (2001). 광고모델에 대한 소비자 지각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체이미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1), 87-116.
- 성영신 (1997). 성과 사회: 소비와 광고 속의 신체이미지. 서울: 나남출판사.
- 안소연 (1994). 폭식행동집단의 신체불만족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병화 (2007). 다변량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시연 (2005). 신체이미지 광고에 대한 노출이 20대 여성 수용자의 기분과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 송중용 (1991). BDI, SDS, MMPI-D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0, 98-113.
- 이정숙 (2001). 중고등학생의 성별, 비만, 타인의 평가와 신체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 최정훈(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6(1), 21-47.
- 오미영, 정인숙 (2005). 커뮤니케이션 핵심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숙현 (1994). 여대생의 섭식장애 행동과 부모와의 애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교 (1998). 여중생의 체형지각에 따른 체중조절 실태,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우울. 세명논총, 7, 619-632.

- 정영남 (2000).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사춘기 여성의 신체상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지숙 (1992). 청소년의 신체상, 신체적 매력, 신체상의 왜곡과 자아존중감과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덕용, 장은영 (2003). 사회비교 동기와 강요된 사회비교가 주관안녕과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8(3), 619-644.
- 한미정 (2000). 신체이미지 관련 TV 메시지의 처리방식이 여대생의 신체만족감과 다이어트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4(3), 291-317.
- Bessenoff, G. R. (2006). Can the media affect us? social comparison, self-discrepancy, and the thin ideal.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 239-251.
- Botta, R. (1999). Television images and adolescent girl's body image disturb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49, 22-41.
- Cash, T. Bullen, B., & Burns, D. (1977). Sexism and beautyism in personnel consultant decision mak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3-1-310.
- Cash, T., & Pruzinsky, T. (1990). *Body image*, NY: The Guilford Press.
- Cooper, P., Taylor, M., Cooper, Z., & Fairburn, C. (1987).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ody shap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6(4), 485-494.
- Cusmano, D. L., & Thompson, J. K. (1997). Body image and shape ideals in magazines: Exposur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Sex Roles*, 37, 701-721.
- Fallon, A., & Rozin, P. (1985). Sex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body shap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102-105.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Gerrard, M., Gibbons, F., Reis-Bergan, M., Trudeau, L., Vande Lune, L., & Buunk, B. (2002). Inhibitory effects of drinker and non-drinker prototypes on adolescent alcohol consumption. *Health Psychology*, 21, 601-609.
- Gibbons, F., & Gerrard, M. (1995). Predicting young adults' health behavior.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505-517.
- Hamberger, A., & Hall, H. (1988). Beauty Quest. *Psychology Today*, 22(5), 28-32.
- Harrison, K. (1997). Does interpersonal attraction to thin media personalities promote eating disorder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41, 478-500.
- Harrison, K. & Cantor, J.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consumption and eating disorders. *Journal of Communication*, 47, 40-67.
- Heinberg, L., & Thompson, J. (1995). Body image and televised images of thinness and attractiveness: A controlled lab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 325-338.
- Jacobi, L., & Cash, T. (1994). In pursuit of the perfect appearance: Discrepancies among self-ideal percepts of multiple physical attribut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5), 379-396.
- Jasmin, S., & Trygstad, L. (1979). *Behavioral concepts and the nursing process*. London: Mosby Corporation.
- Kostanski, M., & Gullone, E. (1998). Adolescent body image dissatisfaction: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anxiety, and depression controlling for body mas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 McMullen, J. (1984). *The effects of physical stereotypes of males and females in media on body image and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 Musa, H., & Roach, M. (1973). Adolescent appearance and self-concept *Adolescence*, 8, 385-394.
- Noles, W., Cash, F., & Winstead, A. (1985). Body imag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1), 88-94.
- Norris, C. (1978). The Professional nurse and body-image. *Behavioral concept and nursing intervention*. Philadelphia: Lippincott Company.
- Ogden, J., & Evans, C. (1996). The problem with weighing: Effects on mood, self-esteem and body image.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 Related Metabolic Disorders*, 20(3), 272-277.

- Posavac, H., Posavac, S., & Posavac, E. (1998). Exposure to media images of female attractiveness and concern with body weight among young women. *Sex, Roles*, 38(3/4), 187-201.
- Reed, L. (1998). *Images and attitude: The impact of media images on the self-esteem, body image and sexual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 Doctoral Dissertation Manuscript.* <http://firstsearch.oclc.org>.
- Ross, C. (1994). Overweight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1), 63-79.
- Schilder, P. (1975). *Disturbance of body-image.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NY: Basic Books Inc.
- Stice, E. (1994). Review of the evidence for a socio-cultural model of bulimia nervosa and an exploration of the mechanism of ac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4(7), 633-661.
- Stein, K. (1996). The self-schema model: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 self-concept in eating disorder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2), 96-109.
- Stice, E. (2001). Risk factors for eating pathology: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In R. H. Striegel-Moore & L. Smolak(Ed.). *Eating Disorders: Innovative Directions in Research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s: Washington D. C.
- Stice, E., & Shaw, H. (1994). Adverse effects of the media portrayed thin-ideal on women and linkages to bulimic symp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288-308.
- Stormer, S., M., & Thompson, J. K. (1996). Explanations of body image disturbance: A test of maturational status, negative verbal commentary, social comparison and sociocultural hypo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9, 193-202.
- Thompson, J. (1990). *Body-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Elmsford, NY: Pergamon Press.
- Thompson, J., & Heinberg, L.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339-353.

- Wheeler, L., & Miyake, K. (1992). Social comparison in everyda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760-773.
- Wills, T. A. (1981). Downward comparison principles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0, 245-271.

## Abstract

### The Effects of Upward Comparison and Fear on Weight on Female Model of Poster Advertisement on Driver for Thinness and Depression

**Mi-Ae Cho**

Doctoral Student, Dept. of Mass Communications, Chungang University

**Chan-Won Kim**

Lecturer, Dept. of Advertising, Semyung University

**Jin-Woo Park**

Lecturer, Dept. of Advertising, Namseo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upward comparison and fear on weight on female models of poster advertisement on driver for thinness and depression focused on female students attending univers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credibility using SPSS 11.0 program, also path analysis using AMOS 7.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emale students' upward comparison on female model of poster advertising did not influence on driver for thinness. second, female students' fear on weight influenced on positively drive for thinness. third, female students' drive for thinness influenced on positively depression.